

[특집]

「모든 형제들」로 가는 길: 프란치스코의 정치신학*



김 민

[예수회 한국 관구·신부]

머리말

1. 해방신학과 프란치스코 교황
 2. 아르헨티나 민중신학
 3. 인간학적 환원과 프란치스코의 정치신학
- 맺음말

1. 머리말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 선출 후 처음으로 방문한 해외 방문지—사실을 말하자면 람페두사 섬은 이탈리아 영토이긴 하지만—로 람페두사 섬을 방문했을 때, 그리고 매우 상징적인 강론을 했을 때, 방문지와 강론 모두 매우 상징적이었다. 일단 람페두사 섬은 난민들의 섬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난민들이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입국할 때 중요한 통과지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많은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파선사고로 인하여 람페두사 섬 인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섬에 교황이 방문하였고 다음과 같은 강론을 남겼던 것이다.

* 이 글은 2021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우리는 우리 형제자매에 대한 책임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우화에서 묘사된 사제와 레위인의 위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길가에서 반죽음이 된 우리 형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딱한 사람이구나 [...]” 그리고는 제 갈 길을 갑니다. [...] 안락함의 문화로 인하여 우리는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이들의 울부짖음에 신경을 끄게 만듭니다. [...] 이렇게 될 때 무관심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세계화된 세상에서 우리는 세계화된 무관심에 떨어지게 됩니다.¹⁾

이 강론은 곧 다시 언급하겠지만 7년 뒤 세상에 나올 「모든 형제들」을 예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강론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주와 난민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으로 삼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중동문제로 인하여 유럽 난민사태가 발생하자 유럽의 교구와 수도원이 난민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2016년 ‘온전한 인간계발 부서’(Dicastery for integral human development)를 설치하여 정의평화, 이주난민, 교정사목 등의 활동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람페두사 섬에서 교황이 한 강론은 앞으로 이주와 난민에 대하여 교회가 립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예고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네 개의 평의회를 묶어서 온전한 인간계발 부서를 만들고 부서의 책임자 중 한 명을 추기경으로 서임하며 힘을 실어주는 식으로 가시화되었다. 실제로 온전한 인간계발부서는 이주난민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다자간 협정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이주민을 위한 글로벌 컴팩트와 난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²⁾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람페두사에서의 강론에서 「모든 형제들」에

1)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homilies/2013/documents/papa-francesco_20130708_omelia-lampedusa.html

2)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와 ‘난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Global Compact on Refugees’의 두 문헌은 유엔의 주도하에 오랜 국제적인 노력 끝에 2018년 발표되었다. 참고로 글로벌 컴팩트는 조약이나 협약과 같은 강제성은 없고 글로벌 컴팩트에 서명한 국가는 국내법을 이 컴팩트에 맞춰 수정하도록 권고받는다.

서 보편적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이자 사회적 관상(social contemplation)의 소재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우화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모든 형제들」에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우화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 — 심지어 강도와 여관주인까지 — 이 폭력과 불의의 희생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보이는 모든 태도를 상징한다면, 람페두사에서의 강론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는 냉담하며 무관심한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개념이 ‘무관심의 세계화’이다. “안이하고 냉담하며 세계화된 무관심”(「모든 형제들」 30)은 “우리 형제자매에 대한 책임감”과 ‘보편적 형제애’, ‘사회적 우애’의 안티테제이며 「모든 형제들」이 저술된 어두운 이유이기도 하다.

이 글은 「모든 형제들」의 핵심적인 가르침들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정치신학적인 측면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이 어떻게 준비되었고 「모든 형제들」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사회에서 어떤 배울 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치신학이 가장 유력한 진보적인 정치신학 가운데 하나인 해방신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해방신학과 프란치스코 교황

2016년 저명한 해방신학자인 레오나르도 보프(Leonardo Boff)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 중의 한명이다. 그분은 해방신학을 교회의 공동의 자산으로 만들었고 더욱이 해방신학을 널리 퍼뜨렸다.³⁾

3) “Brazil may soon have married priests, says Leonardo Boff”, *National Catholic Reporter* (2016년 12월 30일).

<https://www.ncronline.org/news/vatican/brazil-may-soon-have-married-priests-says-leonardo-boff>

보프의 이러한 평가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의 시복시성이다. 1981년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의 1주기를 맞이하여 예수회 총장 페드로 아루페의 주도하에 바티칸의 수도회 장상연합회에서 추모미사를 드렸을 때 교황청이 불편한 침묵을 지켰던 것을 기억한다면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의 시복시성이 해방신학자들에게 얼마나 의미 깊게 다가왔는지 상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방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구스타보 구티에레스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면담과 무엇보다 구티에레스가 신앙포교성청 장관 게르하르트 루드비히 뮐러 추기경과 공동으로 책⁴⁾을 펴낸 사실은 해방신학에 대한 바티칸의 냉대가 프란치스코 교황 시기에 드디어 종식되고 화해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신호가 되었다. 이를 두고 혹자는 “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도 16세의 보수적인 교황청의 삼십년에 거친 적대적인 분위기가 드디어 극적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기도 하였다.⁵⁾

하지만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유보적인 의견도 많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프의 표현대로 해방신학자들에게 “우리 중의 한 명”인지에 대해서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르헨티나 관구의 장상과 신학원의 원장으로 일하던 시절 아르헨티나 관구의 해방신학자들과 불화를 일으킨 일은 매우 유명하다.⁶⁾

프란치스코 교황의 해방신학에 대한 입장은 정황적인 추론의 대상이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대주교로 재임하던 시절 프란치스코 교황 — 당시에는 베르골리오 대주교 — 은 2007년 남미주교회의의 의장으로서 아파레치다(Aparecida)에서 열린 남미주교회의를 주최하였다. 이 회의는 당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한 가지는 베네

4) Gustavo Gutiérrez and Gerhard Ludwig Müller, *On the Side of the Poor: The Theology of Liberation*, Maryknoll, NY: Orbis Books, March 2015.

5) Paul Vallely, *Pope Francis: Untying the Knots: The Struggle for the Soul of Catholicism*, Revised and expanded second edition. ed. (London: Bloomsbury, 2015), p.142.

6) 해방신학자들과의 불화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수회와의 불화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Daniel Burke의 “The Pope's Dark Night of the Soul” 참조.

<https://edition.cnn.com/interactive/2015/09/specials/pope-dark-night-of-the-soul/>

덕도 16세 교황이 회기 중에 남긴 발언과 관련되었고,⁷⁾ 다른 하나는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에 대한 시복시성을 완곡하게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해야할 점은 아파레치다 주교회의에서 이전 메데인과 푸에블로에서 열렸던 주교회의에서 확인한 해방신학의 핵심내용들 —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 기초공동체의 역할, 회심을 통한 개인의 해방과 사회구조의 변화를 통한 공동체의 해방 — 이 다시 재천명된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해방신학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추적했던 야콥 뢰란드(Ole Jakob Løland)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라틴아메리카 주교회의의 의장으로서 아파레치다 문헌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이 해방신학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한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특별한 관심과 가난한 이들의 교회를 성공적으로 언론에 부각시킨 일들은 해방신학의 영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 일은 오히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 해방신학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반대자들에 의해서도 얼마나 잘 사용되는지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 명제의 의미는 그리스도교의 전통적인 자선사업에서 현대의 좌파정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⁸⁾ 뢰란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치신학이 해방신학에서 중시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그것이 보편적인 가치에 해당하기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해방신학의 진영에 속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는 프란치스코가 마르크스주의나 경제적 자

7) “확실히 영광스러운 과거의 기억으로 인하여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복음화 과정에 수반되는 그림자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식민지 개척자들이 원주민들에게 가한 고통과 불의는 종종 원주민들의 인권을 짓밟았고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당화할 수 없는 범죄들이 [...] 수세기 동안 원주민들 사이에 머무른 거룩한 은총의 경탄할 활동을 감사히 인정하는 일을 저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 발언은 남미의 주교단의 반발을 사게 되었고 그 중에는 베르골리오 대주교도 있었다. 문제의 쟁점은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의 상처와 아픔에 교회의 책임이 있는가의 여부였다. Aparecida Document 서론 5번 각주 참조.

<https://www.ltrr.arizona.edu/~katie/kt/misc/Apercida/Aparecida-document-for-printing.pdf>

8) Ole Jakob Løland, “The Solved Conflict: Pope Francis and Liberation The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Latin American Religions* 5(2021), p.303.

유주의와 같은 오던 형태의 이데올로기와는 선을 긋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⁹⁾ 실제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세계청년대회 기간 동안 열린 라틴아메리카 주교 회의에 참석하여 행한 연설에서 선교과정에서 교회가 마주하는 ‘유혹’을 언급하면서 그 중 하나로 ‘사회학적 환원’(Sociological reductionism)을 들었다.

사회학적 환원은 메시지를 이데올로기로 만드는데 가장 잘 활용되는 수단입니다. 어떤 시대이든 이러한 방식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됩니다. 이는 사회과학에서 비롯한 해석학(hermeneutics)에 기반을 둔 해석적인 설명입니다. 이는 시장 자유주의에서부터 마르크시즘적 범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방면에 적용됩니다.¹⁰⁾

여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회학적 환원’이라는 용어로서 비판하고 있는 대상은 신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모두에 해당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해방신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의 흐름에서 탐탁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사회학자 도미니크 월튼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 이러한 탐탁지 않음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도미니크 월튼: 몇몇 사례들이나 심지어 주교들도 세계화에 의해서 자행된 폐해에 대해 비판할 때, 그들의 정치적 행동이 복음이 아니라 사회학적 방법론이나 마르크시즘적 정치적 행위로 전환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컨대 해방신학은 경우 로마에서 이미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치적 행위와 영적인 차원 사이에서 어떻게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프란치스코 교황: 해방신학은 헤겔이나 마르크스 같은 비그리스도교 이데올로기를 차용한 신학적 사유 방식입니다[...].¹¹⁾

9) 같은 논문, pp.307-308.

10) Pope Francis, “Address to the Leadership of the Episcopal Conferences of Latin America during the General Coordination Meeting” (2013년 7월 28일).

11) Pope Francis and Dominique Wolton, *The Path to Change: Thoughts on Politics and Society* (Pan Macmillan, 2018), Location 369 (Kindle edition).

인터뷰는 꽤 흥미진진하다. 도미니크 월튼은 계속해서 해방신학에 대한 교황의 평가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계속해서 완곡하게 이 주제를 회피해나간다. 그래도 인터뷰 중반 즈음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은 해방이라는 주제는 해방신학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를 해방시킨 예수님의 활동이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하느님의 활동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해방신학이 채택한 해석방법 중의 하나가 현실에 대한 마르크시즘적 분석”이라는 사실을 다시 언급한다. 그러면서 예수회원 페드로 아루페 신부가 1980년 작성했던 편지를 언급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마르크시즘 분석이 행해질 수 없다고 말한다.¹²⁾

이 인터뷰는 꽤 의미심장하다. 집요하게 해방신학에 대한 평가를 이끌어내려는 도미니크 월튼의 시도에 대항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종일관 해방신학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이자 마르크시즘 사회분석이라는 사실만을 언급하며 —그 언급 자체가 탐탁지 않은 논조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낯선 신학인 아르헨티나 민중신학을 언급하고 있다. 사실 아르헨티나 민중신학이야말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치신학을 이해하는데 해방신학보다 더 직접적이고 유용한 실마리가 된다.

2. 아르헨티나 민중신학

당신이 꼭 읽어야 할 철학자가 있습니다. 매우 훌륭한 인간학 철학자로 아르헨티나 북서부에 살고 있는 독일인인 로돌포 쿠쉬(Rodolfo Kusch)가 그 사람입니다. 이 분이 내가 다음 한 가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민중’이라는 단어는 논리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 이는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 민중을 이해하기 위해서, 민중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신은 그들의 전통의 영혼과 활동,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2) 위의 책, Location 2340.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인용했던 페드로 아루페는 “Marxist Analysis by Christians”(1980.12.8.)에서 마르크시즘 사회분석이 사회집단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등의 요인을 들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언급을 하였다. 페드로 아루페가 거부했던 것은 마르크시즘 분석방법이 아니라 유물론 철학과 마르크스 이데올로기였다. 그리고 이러한 페드로 아루페의 입장은 1977년의 “Marxism and Catechesis”와 함께 바티칸에서의 그의 입장을 극도로 난처하게 만들었다.

다. 이것이 이른바 ‘민중의’ 신학의 근본입니다.¹³⁾

도미니크 월튼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아르헨티나 민중신학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치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아르헨티나 민중신학에서 이해하고 있는 민중 혹은 대중이라는 개념은 이 인터뷰 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의 기쁨」에서 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민중신학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예수회원 신학자인 후안 카를로스 스카노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민중신학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후 아르헨티나 주교들이 이 공의회 of 사목적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1966년 조직한 사목실천을 위한 주교위원회(Episcopal Commission for Pastoral Practice(COEPAL))를 조직하면서 시작하였다. 이 위원회에 참여한 주교들과 신학자들이 아르헨티나 민중신학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풀어냈던 것이다.¹⁴⁾ 아르헨티나 민중신학에서 ‘민중’이라는 단어는 서구의 식민지 제국의 대척에 선 단어로, 민중이나 대중문화, 대중신심, 민중의 종교성 등이 매우 중시된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of ‘하느님의 백성’ 개념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¹⁵⁾ 이때의 민중은 역사와 문화의 주체이며 그렇기에 라틴 아메리카의 민중들의 문화 속에 깊숙이 자리잡은 신앙이야 말로 복음화의 대상(recipients)이면서 주체(agents)가 될 수 있는 원천이 된다. 쉽게 이해하자면,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선교사들의 개종 대상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 풍속으로 소화해내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신학자로 활동했던 이들이 루치오 게라(Lucio Gera, 1924~2012)와 라파엘 텔로(Rafael Tello, 1917~2002)였다. 특히 텔로의 경우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슬럼가에서 살면서 그리스도교의 복음화는 민중들, 특히 가난한 이들의 문화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사실

13) 위의 책, Location 375~376.

14) Juan Carlos Scannone, S.J., “Pope Francis and the Theology of the People”, *Theological Studies*, vol.77(1), 2016, pp.119~120.

15) 같은 곳.

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신학이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원활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텔로의 경우 군부와 당시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주교와 불화를 일으켰고 결국 신학교의 교수직에서 쫓겨났다.¹⁶⁾ 텔로가 죽은 후 당시 추기경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께서는 종종 보상을 해주십니다. 당시 이러한 신학적 사유를 쫓아내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했던 교권이 오늘 날에는 이들이 유효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사유가 아르헨티나의 복음화 활동의 토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¹⁷⁾

이러한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민중신학은 해방신학과 달리 바티칸과 적극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결과가 바로 바로 6세의 권고인 “현대의 복음선교”(Evangeliu Nuntiandi)이다.¹⁸⁾ 그리고 아르헨티나 민중신학의 정신을 가장 압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앞서도 잠깐 언급했던 아파레치다 문서인데, 한 대목을 인용하면 이렇다.

문화 속에 체화된 신앙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스며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이미 씨를 뿌리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에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대중의 신심(popular piety)은 “민중들의 신앙을 심화하고 성숙에 이르게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출발점”이다. [...] 우리는 모든 신앙인이 성모님과 성인들의 증언을 이해하고 매일 보다 더 이 증언을 따라서 살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보다 더 직접적으로 성경과 만나게 될 것이고 성사에 보다 더 참여할 것이며 일요일의 성찬례를 더 즐기러 올 것이며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연대를 통한 사랑의 실천에 더 힘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민중들의 신비주의가 품고 있는 거룩함과 사회정의의 풍요로운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도이다.¹⁹⁾

바로 이 문서가 출현하게 된 아파레치다 주교회의를 라틴 아메리카

16) Ethna Regan, “The Bergoglian Principles: Pope Francis' Dialectical Approach to Political Theology”, *Religions* 10(670), 2019, 2/16.

17) Enrique Ciro Bianchi, *Theology of the People: An Introduction to the Work of Rafael Tello*, New York: Crossroad, 2019.

18) Scannone의 같은 논문, p.123.

19) *Aparecida Document* 262.

주교회의 의장으로서 주재하였던 이가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었음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신앙의 토착화로 익숙해진 아르헨티나 민중신학의 성취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앙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원주민과 같은 민중들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이 민중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시각이 두드러지게 표현된 것이 2013년 11월 24일 발표된 교황권고 「복음의 기쁨」이다.

「복음의 기쁨」에서 특히 제3장 복음선포는 이 교황권고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라는 사도적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런데 이 핵심적인 내용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사유들은 아파레치다 문서에서 표현된 아르헨티나 민중신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반영되어 있다.

“세례 받은 모든 이는 교회 안의 역할이나 신앙 교육의 수준에 상관없이 복음화의 능동적인 주체입니다. 따라서 복음화 계획은 전문가들이나 수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신자들은 그저 수동적인 수용자라고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복음의 기쁨」 120번).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의 토착화를 이룬 다양한 민족들이 복음화의 적극적인 주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저마다 고유한 문화의 창시자이며 자기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복음의 기쁨」 122번).

“「아파레치다 문헌」에서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대중 신심에 거저 베풀어 주신 풍요로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을 대중 신심을 통하여 표현하는 이 사랑받는 대륙에서 주교들 또한 이를 “대중 영성” 또는 “민중의 신비주의”라고 하였습니다”(「복음의 기쁨」 124번).

이밖에도 많은 부분에서 아르헨티나 민중신학의 언어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의 기쁨」에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는 7년이 지나서 발표된 사회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문화적 식민화’(cultural colonization)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음의 기쁨」에서 또 다른 교황권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를 인용하며 “역사를 무시하고 선조들의 경험을 거부하며 과거를 경

시하는” 이들이 결국 문화적 식민화에 빠지게 되며, 그리하여 “정신적 특징과 윤리적 일관성은 물론, 마침내 사상적 경제적 정치적 독립성마저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²⁰⁾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고유하게 보존한 이들은 「모든 형제들」의 제5장 더 좋은 정치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더 좋은 정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자가 된다.

사회는 개개인들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민중’이라는 용어가 필요합니다. 거대 물결과 공동체적 열망뿐만 아니라 다수 집단을 만들어 내는 사회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다름을 초월하는 공통된 목표를 제안하고 여기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²¹⁾

‘민중’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단순한 사람들의 집합체 이상의 의미를 갖으며, 그 잉여의미는 아르헨티나 민중신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에서 비롯한다. “한 민중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 문화적 유대에서 나온 공동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²²⁾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치신학에서 ‘민중’에게 부여한, ‘더 좋은 정치’를 향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자의 지위는 아르헨티나 민중신학과 특히 아파레치다 문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민중’의 개념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3. 인간학적 환원과 프란치스코의 정치신학

혹자는 프란치스코의 주된 관심사가 정치적 인간학(political anthropology)이라고 부름직하다고 말한다.²³⁾ 그 이유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치의 문화적 인간학적 뿌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20) 「모든 형제들」, 13~14번.

21) 「모든 형제들」, 157번.

22) 「모든 형제들」, 158번.

23) Ethna Regan, “The Bergoglian Principles: Pope Francis' Dialectical Approach to Political Theology”, *Religions* 10(670), 2019, 1/16.

다. 사실 현대사회의 병리적 문제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인 인간에 대한 관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주목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집대성된 것이 지금 우리가 반포 1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모든 형제들」이다. 「모든 형제들」에서 ‘환원적 인간학’(reductive anthropology)라고 표현한 인간에 대한 병리적인 관점은 한마디로 인간을 쓰고 버리는 존재로 만드는 관점이며 한 사회에서는 노약자나 장애인, 혹은 충분한 기술이 없는 이들을 쓸모없는 존재로 바라보게 만들고, 지구 전체의 관점에서는 이주민이나 난민과 같은 보호막이 없는 존재들을 마찬가지로 짐 덩어리로 바라보게 만든다.

실제로 인권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 이따금 증명된다. [...] 70년 전에 장엄하게 선포된 모든 사람의 동등한 존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정받고 존중되며 보호받고 증진되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환원주의적 인간학 전망들은 물론, 거리낌 없이 착취와 유기와 살인까지 불사하는 이윤에 기초한 경제 모형이 조장하는 무수한 형태의 불의가 현대 세계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²⁴⁾

「모든 형제들」에서 단 한번 나오는 ‘환원적 인간학’을 길잡이로 삼아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치신학의 인간학적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은 환원적 인간학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앞서의 글들과 연설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먼저 환원적 인간학을 처음으로 예고한 것은 맨 처음 언급했던 람페두사 섬에서의 강론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난민선의 난파로 인하여 난민들이 폐죽음 당한 난민들의 섬에서 이제 우리는 같은 형제자매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법을 잊게 되었다고 탄식하면서 ‘무관심의 세계화’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 단어는 매우 깊이 있는 단어가 되었다. 먼저, 이 단어는 무관심의 세계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무

24) 「모든 형제들」, 22번.

관심하게 되었는데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고, 다음으로는 이 무관심의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화두를 우리에게 안겨주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은 무관심의 문제, 우리가 우리의 형제자매들의 죽음을 외면하는 문제, 카인의 형제살해 이후 인간의 상징적 실제적 역사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처음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다루고 있는 것이 「복음의 기쁨」이다. 「복음의 기쁨」에서는 이 문제는 ‘상대주의(relativism)’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증오와 폭력이 걱정스러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더 큰 문제는 만연한 무관심과 상대주의입니다”(「복음의 기쁨」 61번). 그런데 주의할 점은 「복음의 기쁨」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용하고 있는 상대주의는 매우 폭넓고 확장성이 높은 개념이라는 사실이다. 예컨대 윤리적인 가치가 상대화되는, 오늘날의 세속화된 사회의 문제는 윤리적 상대주의로 표현되며, 그리스도교 가치 역시 종교 다원주의 상황에서 자칫하면 교리적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으며, 복음화 과정에서 교회의 활동가들은 자신의 활동을 하느님과 가난한 사람들이 배제된, 활동을 위한 활동, 성취를 위한 활동으로 전락하는 실천적 상대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인간을 쓸모 있는 존재와 쓸모없는 존재로 나누는 인간학적 상대주의이며 이것이 나중에 「모든 형제들」에서 인간학적 환원주의 혹은 환원적 인간학으로 표현된다.

나중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음의 기쁨」 반포 직후 열린 국제 세미나에서 ‘무관심과 상대주의’에 환원주의라는 이름을 붙이며 보다 정리된 형태로 설명을 했다. 좀 길지만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인용을 해보자.

여러분들 중 한분이 저에게 세 가지의 환원주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중 한 가지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인간학적 환원주의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이야말로 인간학적 환원주의가 가장 극심한 시기입니다. 와인이 그라파[와인을 증류한 독한 술]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인간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와인이 조작기술을 거치게 되면 이는 더 이상 와인이 아닌 다른 것이 됩니다. 아마도 더 쓸모 있고 특별한 것이 되겠지만 와인은 아니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인간에게도 벌어집니다. 인간이 이러한 조작기술을 거치게 되면, 정말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인간성을 상실하고 시스템, 사회시스템과 경제시스템, 불공정이 지배하는 시스템의 도구가 됩니다. [...] 필요가 없는 것은 치워 집니다. 왜냐? 인간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중심에서 밀려 나면 다른 것이 중심을 차지하고 인간은 그 다른 것을 섬기게 됩니다.²⁵⁾

하지만 이후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간학적 환원주의라는 용어보다는 여전히 상대주의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그런데 이 때의 상대주의는 ‘쓰고 버리는 문화’(throwaway culture)라는 표현과 만나게 되면서 「복음의 기쁨」에서보다 더 선명하게 의미를 표현하게 된다. 대표적인 문헌이 「찬미받으소서」이다. 「찬미받으소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날의 병리적인 인간학에 대한 비판으로 내세운 용어는 「복음의 기쁨」에서 짧게 언급된 ‘실천적 상대주의’(practical relativism)이다. 그리고 실천적 상대주의는 주로 인간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우리의 환경과 자원을 인간의 편리를 위해 ‘쓰고 버리는 문화’와 결합하여 강력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상대주의 문화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단순한 대상으로만 취급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빛을 명분으로 노예로 부리는 것과 다름없는 질병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이익에 보탬이 안 되는 노인을 유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는 ‘쓰고 버리는’ 논리와도 같습니다”(「복음의 기쁨」123번).

「모든 형제들」의 제1장 닫힌 세상의 그림자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현대 세계에 대한 비판적 사유가 망라되어 있다. “보편적인 형제애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현대 세계의 몇 가지 경향”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시작된 현대 세계 비판은 사실 깔끔하게 정리가 안될 정도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 Address of Pope Francis at the conclusion of luncheon with the participants in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Pope's proposal "Towards a more Inclusive Economy" made in the apostolic exhortation *Evangelii Gaudium*, 2014.7.12.

하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요약이 된다.

1. 평화와 화해를 향한 세계화에도 여전한 민족주의의 발흥.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자국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민족주의는 보편성을 지향하는 세계화의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민족국가의 기획이 아직 미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민족주의에 따른 자국이해의 우선주의가 보편적 형제애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2. 잘못된 세계화 혹은 신자유주의 모델에 따른 세계화의 문제. 그리고 지금의 세계화의 추세 역시 자본의 세계화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문화영역에서의 세계화도 각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역사적인 경험과 그 경험에서 오랫동안 형성된 고유한 정체성—를 획일화하는 문제가 있다. 마치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지난 식민화의 경험에서 유럽의 이식된 정체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잘못 인식하고 제 몸에 맞지 않은 옷을 걸치며 문명화되었다고 착각한 것과 같은 식으로 말이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했던 아르헨티나 민중신학과 아파레치다 주교회의의 문제의식이 깊이 스며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화식민지화는 잘못된 세계화의 또 다른 예로 설명할 수 있다.

3. 언어들의 잘못된 전유(appropriation). 이 부분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보다는 암시 정도로 건너뛰고 있지만 무척이나 유의미한 부분이다. “역사의식, 비판적 사고, 정의를 위한 투쟁, 통합의 길을 약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중요한 단어들의 의미를 공허하게 하거나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자유, 정의, 일치와 같은 단어들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이 단어들은 조작되고 변형되어, 어떠한 행동을 해도 정당화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공허한 표제어처럼 지배의 도구로 악용됩니다”(「모든 형제들」 14번).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려와 양보와 같은 전통적인 덕목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한국사회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언어의 잘못된 전유에 관한 통찰은 우리의 사목적인 노력이 원래 귀하게 사용되었던 가치들을

다시 재발견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4. 환원적 인간학에 따른 무관심의 세계화. 코로나 19로 인하여 일부 국가에서 노인들에 대한 의료적 대처의 포기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우리 사회의 병리적인 문제를 돌아보게 만드는 충격적인 계기가 되었다. “가난한 이들, 장애인, 태아처럼 ‘아직 쓸모없는 존재’, 노인처럼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는 [...] 존경하고 보호할 우선 가치로 더 이상 여겨지지 않습니다”(「모든 형제들」 18번). 효용에 따라 언제든지 버려지는 문화는 마찬가지로 ‘여전히 쓸모 있는’ 존재에게도 적용된다. 이주민이나 난민, 기술력이 낮은 단순 노동자들은 경영상태에 따라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중심이 아니게 된 것이다.”²⁶⁾

5. 불평등을 조장하는 잘못된 사회구조. “실제로 인권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 이따금 증명”(「모든 형제들」 22번)되는 상황을 우리는 의식해야 한다. 특히 젠더에 관한 불평등 — 이 부분은 한국사회에서도 엄청난 논쟁의 대상이다 —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야기한 “온갖 형태의 노예살이”(「모든 형제들」 24번)이다. ‘온갖 형태의 노예살이’가 함축하는 바는 인신매매와 특정한 형태의 이주이며 이 부분은 교황청, 특히 온전한 인간 계발 부서에서 주목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인신매매가 의미하는 바는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여러 형태의 강압적인 방식으로 타인의 신체를 돈으로 사고파는 것이다. 이때의 강압적인 방식은 폭력이나 강요뿐만 아니라 허위와 기만, 심리적인 길들이기도 포함된다. 그리고 특정한 형태의 이주 역시 혼인을 위해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환원적 인간학에 따른 병리적 현상과도 관련이 있는데, “인간을 물건처럼 다룰 여지가 있는 인간 개념”(「모든 형제들」 24번)에서 이러한 행동이 비롯하기 때문이다.

간략하게 요약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결과는 한마디로 “한 인류라는 소속감이 약화되고, 정의와 평화를 함께 건설하려는 꿈은

26) 위의 글.

시대에 뒤떨어진 이상향으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안이하고 냉담하며 세계화된 무관심”(「모든 형제들」 30번)으로 대하게 된다.

맺음말

지금까지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치신학을 해방신학과 관계에서부터 출발하여 아르헨티나 민중신학,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독특한 개념인 환원적 인간학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해방신학 사이의 긴장은 여러모로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공식적인 문헌에서는 아니지만 인터뷰나 다른 연설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해방신학에 대해서 탐탁지 않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탐탁지 않은 대상 중에 하나는 마르크시즘 사회분석 방법론까지 포함되어 있다. 예수회 아르헨티나 관구장 시절부터 보여왔던 해방신학에 대한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감안하면 프란치스코 교황과 해방신학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노력은 그다지 유익해보이지 않는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주교시절부터 신자유주의와 경제적 세계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실을 상기한다면,²⁷⁾ 교황이 해방신학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는 의아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세계화의 경우 아르헨티나 민중신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비판적이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세계화된 자유시장 경제 체제는 600년 전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언어와 종교, 문화를 빼앗았던 제국주의 체제의 21세기 판으로 보였을 것이다. 게다가 「복음의 기쁨」 제4장 복음화의 사회적 차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피력했던 유명한 베르골리오 4원칙의

27) 실제로 스테픈 무어(Stephen Moore)나 러쉬 림보우(Rush Limbaugh)와 같은 미국의 우파 언론인들과 경제학자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보인 비판을 들어 프란치스코 교황을 공산주의자로 비난한 바 있다. “Is the Pope a communist?”(BBC News, 7 June 2015) 참조: <https://www.bbc.com/news/magazine-33024951>

하나가 “실재[현실]가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임을 생각할 때에는 더욱 해방신학에 대해서 거리를 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원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 공허할 수 있는 관념이나 이데올로기, 미사여구보다 훨씬 중요하며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선 현실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치신학에 대해서 연구했던 더블린 대학교의 에트나 리건(Ethna Regan)은 가난한 이들, 주변으로 밀려난 이들의 일상적인 삶(lo cotidiano)을 중시하고 바로 이러한 일상적인 현실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문화, 습관을 이해할 때 진정으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라틴 아메리카의 특유의 신학적 풍토가 베르골리오 4원칙의 하나인 “현실이 관념보다 더 중요하다.”의 토대가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²⁸⁾

그런 점에서 우리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치신학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르헨티나 민중신학일 것이다. 아르헨티나 민중신학이 강조하는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민중’의 개념, 그리고 그들이 일상 속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형성해왔던 고유한 언어와 문화, 그리고 이에 따라 하느님의 말씀이 더욱 풍요롭게 그들 사이에 뿌리를 내렸다는 사실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하느님 나라를 이 지상에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민중’의 역할에 대하여 특별한 통찰을 하게 만들었다. 이 부분은 특히 도미니크 월튼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확인할 뿐 아니라 여러 교황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각자는 한 민중의 일원이 될 때 온전한 인격체가 됩니다. 동시에 각 인격체의 개성이 존중되지 않고서는 민중이 있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오늘날 인격체를 부당이득을 추구하는 권력자들이 손쉽게 지배하는 고립된 개인으로 축소시키려는 시도가 있습니다.”(「모든 형제들」 182번).

마지막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날의 세계를 관상하면서 보게 된 이 세계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위

28) Ethna Regan, “The Bergoglian Principles: Pope Francis' Dialectical Approach to Political Theology”, *Religions* (2019, 10, 670), 10/16.

낙에 다양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기에 단순한 몇 가지 개념으로 명료화할 수는 없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용한 ‘환원적 인간학’이라는 단어는 그의 정치신학, 정확히 말하면 현대 세계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문제의 해결책의 제시에서 좀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에 대한 관점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존중,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한 인간의 가치가 쓸모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 그래서 쓸모없는 인간은 버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환원적 인간학이며, 이 인간학에 따르면 난민이나 이주민, 가난한 이들, 노인은 무관심의 영역에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환원적 인간학이 전지구적인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 어느 교구의 본당 신자들을 대상으로 이주 난민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우리에게 이주민과 난민들 역시 우리의 형제 자매이며 그렇기에 우리가 마치 귀한 손님을 맞아들이듯이 우리에게도 귀한 것을 내주라는 초대를 하고 계신다는 요지의 나눔을 했었다. 질의응답 시간에 굉장히 뜨거운 성격의 질문이 던져졌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이 많은데, 왜 이주민과 난민들에게도 퍼주어야 합니까?’ 이 물음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질문이며 질문을 던진 사람이 냉담하거나 냉혈한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 물음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서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과 초대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숙고하며 어떻게 실천할지를 고민하는 우리들조차도 여전히 마음과 정신의 회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마치 다정한 아버지, 따뜻한 어머니의 품에서 바로 나온 것처럼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좀 더 걱정하고 배려하고 품어주는 시선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것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치신학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근원적인 물음일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정하게 바라보듯이 서로를 귀한 인격으로 바라볼 것인가.

[참고 문헌]

1. 단행본

- Gustavo Gutiérrez and Gerhard Ludwig Müller, *On the Side of the Poor: The Theology of Liberation*, Maryknoll, NY: Orbis Books, March 2015.
- Paul Vallely, *Pope Francis: Untying the Knots: The Struggle for the Soul of Catholicism*, Revised and expanded second edition. London: Bloomsbury, 2015.
- Pope Francis and Dominique Wolton, *The Path to Change: Thoughts on Politics and Society*, Pan Macmillan, 2018(Kindle edition).
- Enrique Ciro Bianchi, *Theology of the People: An Introduction to the Work of Rafael Tello*, New York: Crossroad, 2019.

2. 논문 및 기사 등

- 프란치스코 교황, 「복음의 기쁨」,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4.
- 프란치스코 교황, 「찬미받으소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5.
- 프란치스코 교황, 「모든 형제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21.
- Pope Francis, *Homily of Holy Father Francis at visit to Lampedusa*(2013년 7월 8일).
- Pope Francis, “Address to the Leadership of the Episcopal Conferences of Latin America during the General Coordination Meeting”(2013년 7월 28일).
- Pope Francis, “Address of Pope Francis at the conclusion of luncheon with the participants in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Pope’s proposal “Towards a more Inclusive Economy” made in the apostolic exhortation *Evangelii Gaudium*” (2014년 7월 12일).

Aparecida Document, Aparecida, 2007년 5월 13~31일.

- Ole Jakob Løland, “The Solved Conflict: Pope Francis and Liberation The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Latin American Religions* 5(2021), pp.287~314.
- Juan Carlos Scannone, S.J., “Pope Francis and the Theology of the People”, *Theological Studies*, vol.77(1), 2016, pp.118~135.
- Ethna Regan, “The Bergoglian Principles: Pope Francis’ Dialectical Approach to Political Theology”, *Religions* 10(670), 2019, pp.1~16.

“Brazil may soon have married priests, says Leonardo Boff”, *National Catholic Reporter*(2016년 12월 30일).

Daniel Burke, “The Pope's Dark Night of the Soul”(CNN).

국문초록

「모든 형제들」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대 세계에 대한 관상을 통해서 이 세계의 문제점들을 통찰해낸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형제적 박애’와 ‘사회적 우애’를 제시한다. 이러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치신학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정치신학에 영향을 끼친 신학적 사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해방신학의 경우 일견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치신학과 유사한 부분, 예컨대 신자유주의와 경제적 세계화, 자유시장에 대한 비판 등으로 인하여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해방신학과 이미 교황직에 오르기 전, 예수회 아르헨티나 관구의 관구장 시절부터 거리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거리두기의 이유로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념적인 것 보다는 현실을 우선시하는 경향과 무엇보다 마르키시즘 사회분석에 대한 비판이었다.

해방신학보다는 오히려 아르헨티나 민중신학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치신학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주교로서 주관했던 2007년 아파레치다 주교회의는 역사에 있어서 민중의 역동적인 역할과 그들의 고유한 문화의 중요성을 인정했는데, 이는 아르헨티나 민중신학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라틴 아메리카의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여러 교황문헌들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모든 형제들」에 표현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치신학에서 매우 흥미로운 개념이 ‘환원적 인간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은

이름을 달리하여 교황의 이전 연설문들과 문헌들에서 나온 개념이다. ‘환원적 인간학’은 교황이 현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병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해준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치신학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리를 살펴보고 보편적 형제애의 정신을 되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화두를 제시해준다.

▶ 주제어: 프란치스코 교황, 정치신학, 해방신학, 아르헨티나 민중신학, 환원적 인간학